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2022/11



오케이속초는 '오케이속초'의 음절마다 초성을 골라 나열한 표현으로, 속초의 문화를 발랄하게 즐겨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케이속초는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브랜드명입니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문화브랜드로 성장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홈페이지
www.oksc.or.kr



문화도시 속초 페이스북
www.facebook.com/oksokcho



속초문화관광재단 블로그
blog.naver.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유튜브에서 '속초문화관광재단' 검색



속초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ww.sokchocf.or.kr



문화도시 속초 시민활동가 밴드
band.us/@oksokcho



속초문화관광재단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밴드
band.us/@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홈화면에서 '속초문화관광재단' 검색



Vol. 14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발행처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발행인 이병선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시민활동가 고유미, 김종현, 문정아, 박경심, 유지인,
장재환, 전누리, 전태극, 정미현, 함연화

편 집 정미현

디자인 장민정

표지사진 청초호 물빛 전태극

얼음 분쇄기. 생선 선도를 위해 분쇄된 얼음을 가득 싣고
출항한다.

© 2022 속초문화관광재단

저작권자가 표시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
자가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속초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
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570-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T. 033-636-0671 (문화도시TF팀)

F. 033-636-0665

www.sokchocf.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www.oksc.or.kr

목차

문화도시 알기

문화도시 사업은 소실대득(小失大得) > 02

김미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주목 인터뷰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 > 06

속초도문농요 예능보유자 오순석, 오명현을 만나다

속초사색

영랑호 그리고 노학동 > 10

전태극·박경심

공간의 발견

우리의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책, 그리고 사람들 > 14

속초시립도서관 탐방기

전입 신고합니다

매일 영랑호를 걸으며 마을을 주욱 펴고 사는 삶 > 18

김평화, 속초 시민

이야기 보따리

술섬(松島)과 속초 > 20

김정환, 시민활동가

우리 곁의 사람들

실랑민들이 내린 하나의 닻 > 24

아트플랫폼 갯배 심삼옥 사무국장을 만나다

속초 느낌표

놀라운 성취 뒤의 어두운 그림자 > 28

김영희, 속초 시민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30



문화도시 알기

문화도시 사업은 소실대득 (小失大得)

문화도시 사업을 개시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수록 센터 직원들은 점점 더
 고달파졌다. 다시 말해, 중간조직인 센터직원들의
 작은(?) 희생이 도시와 시민의 변화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02
 ∨
 03

요즘 들어 부쩍 문화도시 사업이 요술봉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해온 지역은 전과 다르게 바뀌고 있다. 사람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도시가 변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싫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숨겨져 있다. 아마도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모든 문화도시센터 직원들이 이 같은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을 것이다.

청주도 문화도시 사업을 개시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도시의 이미지가, 예술가와 청년들의 활동이,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눈에 띄게 바뀔에 따라 삶의 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센터 직원들의 삶도 바뀌어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수록 센터 직원들은 점점 더 고달파졌다. 다시 말해, 중간조직인 센터 직원들의 작은(?) 희생이 도시와 시민의 변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먼저, 변화의 첫 시작은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2016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시민들은 다

른 문화사업과 다르지 않게 수혜자로서 참여했다. 하지만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펼쳐진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에서부터 시민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예비사업까지 포럼, 소셜네트워크 픽션, 인문살롱, 라운드테이블 등 다양한 활동에서 '문화10만인클럽'의 5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시의 문화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하며 청주의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길을 걸어왔다.

문화10만인클럽의 청주시민은 2020년 문화도시 본 사업 1년차에 그들 자체적으로 시민위원 20명을 선출했다. 시민의 대표가 된 시민위원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청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정책을 만들고 스스로 도시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청주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율예산제 'Issue 이슈'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 창의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조사와 연구, 인문활동 등을 통해 재구성하고 집중 조명함으로써 동네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의 변화다. 예비문화도시 사업 심사 때 청주는 청년 중심의 활동가가 보이지 않고 관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평가와 지적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이에 2019년 예비문화도시 사업 때에는 청년단체 10팀을 중심으로 사업 제안과 수행 그리고 문화도시 축제를 진행하며 재단 중심의 사업진행에서 청년(민간)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문화도시가 지정되고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청주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청년기획자, 예술가 및 단체가 활동하며 문화도시 사업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청년 및 예술가, 단체 등 워킹그룹이 발굴되었고 그들의 참여가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참신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들도 쏟아져 나왔고 이로써 청년들이 청주 곳곳의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난 2년 여간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 분야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청주에서는 문화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와 협동조합이 늘어났다. 이는 곧 청주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대표적인 예로 청주의 이야기나 역사를 상품으로 만들어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청년문화상점 '굿즈'는 지역작가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주희진 대표가 직접 이를 운영하며 문화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기록문화도시'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다. 처음 청주의 비전을 '기록문화 창의도시'라고 내놓았을 때 이를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청주에 또 다른 이미지로 '기록문화'를 내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존재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기록문화의 장으로서의 청주를 과감히 밀어붙였고,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까지 청주를 '기록문화도시'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만든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는 청주가 본래 갖고 있었던 '직지'라는 자산에 더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기록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시민기록까지 아우르며 미래세대를 위해 기록활동을 펼쳐온 관련 사업들 덕택이다. '동네기록관'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업으로 공동체를 회복시

청주 기록 도시 포럼





동네기록관 '터무니'



청년문화상점 '굿즈'

04
✓
05

키고자 만든 청주만의 시민커뮤니티 공간이다. 작은도서관, 카페,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 기존 운영되던 공간에 주민들의 기록활동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동네기록관은 운영방식도, 프로그램도, 공간 구성도 각각의 동네마다 다양하다. 시민들이 기록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동네기록관이라면, 청주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시민기록관'이다. 올 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주시기록관에서 청주기록원으로 승격, 개원함으로써, 청주는 명실상부하게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두루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앞으로 청주기록원 안에 조성될 예정인 시민기록관은 가치 있는 시민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여 미래세대의 귀중한 자료를 남겨줄 것이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청주는 '기록문화 창意的도시'로 발전하면서 성장했다. 그 안에 문화도시를 애정하며 가꾸고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직원이 있다.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질이 바뀌고 도시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그 뒤에 숨어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센터 직원

들은 행복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다. 지금도 누구는 긴 시간동안 지쳐 매너리즘에 빠졌고 누구는 새롭게 합류하여 패기와 열정으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 개개인을 보면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덕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과 업무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도시는 많은 것을 얻었는가? 현재까지의 답은 그렇다. 문화도시 사업은 소실대득(小失大得)이다.

지금도 전국의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들은 이 사업에 영혼을 담아 매진하여 피고름을 쏟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끝이 없는 이 사업에 유연한 태도와 '마음 비움'은 필수적이며 그리하여 우리 직원들은 언제나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높이는 행복한 사업을 해가는 그 중간조직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



왼쪽부터 오명현, 오순석

© 2024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며칠 지났다. 푸릇 푸릇 싱그러웠던 눈이 어느덧 황금빛 물결로 일렁이며 맑은 가을하늘과 함께 빛나고 있다. 이즈음은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농사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 속초도문농요보존회 오명현 회장님과 오순석 초대회장님을 만나 뵈었다.

속초도문농요는 농사짓는 전 과정을 농요(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우리 전통의 소리)로 표현한 것으로 과거에는 ‘도문메나리’라고 불렸다. 상도문마을 주민들이 2005년 4월 속초도문농요보존회를 결성해 농요의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해왔다. 속초도문농요 예능보유자는 3명이다. 속초도문농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2007년에 오순석 초대회장님이 처음 예능보유자로 선정되었고, 올해 보존회장을 맡은 오명현 회장님과 최도수 님은 각각 2008년에 예능보유자로 선정되어 속초도문농요 공연과 전수에 앞장서왔다. 속초도문농요보존회는 10월 9일 열린 제57회 설악문화제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먼저 속초도문농요의 전승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명현) 속초도문농요는 조선시대부터 전래되어온 노동요의 하나로, 농경마을인 상도문마을에서 농부들이 불렀습니다.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나타낸 노래라고 평가받지요.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농요들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을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온 농요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2007년 2월 23일)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일에 무척 고생했잖아요. 그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랬던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속초도문농요는 그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오세준, 박남식, 김남형 등의 마을 어르신들이 이 노래를 처음으로 발굴, 전파했고 이후 오순석 형님께서 이를 계승, 체계화하면서 강원도로부터 예능보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문농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오순석) 제가 20대에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40,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해요.
속초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계승해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잘 협력해주었으면 좋겠어요.”**

50대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김을 매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김매기 노래라는 게 좀 부르기 힘들었어요. 보통 7, 8명씩 몰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악보가 어려워서 배우기 힘들어 제대로 다 못 불렀거든요.

김남형 어르신이 그중 제일 노래를 잘하시던 분인데,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이 선소리를 하고 우리는 뒤따라 다니면서 소리를 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다 못 따라했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음악에 소질이 조금 있어서 소리를 했던 거고요.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면서 보유자를 만들려고 교수들이 와서 그분에게 소리를 요청했는데 못하시더라고요. 평생 시에는 그렇게 잘하던 분이 시험을 보니까 소리를 못하시니 그다음에 저 보고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야 원래 노래를 좋아해서 소리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보유자가 되고 그분은 그러질 못했어요. 옛날에 한창 일할 때는 잘하셨는데 나이도 좀 있고 교수들이 와서 하라고 하니 못하셔서 예능보유자 선정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점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둘이 같이 보유자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오명현) 16, 17살 때부터 농사 김매기를 따라다녔어요. 오순석 형님이 말씀하신, 소리하는 일고여덟 명 중에 우리 형님도 있었거든요. 우리 논 김매기 할 때가 되면 저도 같이 따라갔었죠. 그러면 김남형 어르신께서 “이제 우리 소리 한마디 하자”면서 선소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리가 귀에 익히지더라고요.

문화재 지정 후 전수장학생 제도가 생겼어요. 전수장학생이 되고 나면 전수조교가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예능보유자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오순석 형님, 최도수 님, 그리고 제가 속초도문농요 예능보유자가 되었어요. 저도 창가 소질이 있어서 옛날에 동네 공쿨대회, KBS 노래자랑에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 취미가 있으니까 김매는 소리, 도문메나리도 남달리 좀 빨리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속초도문농요는 서낭굿, 논 삶는 소리, 모 찌고 심는 소리, 김매는 소리, 파대치기와 새 쫓기, 벼 베기와 한단소리, 마랭이와 벗가리 지우는 소리 등 7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연 4차례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공연할 때에는 어떤 소품을 사용하시나요?

(오명현) 공식적인 시연행사는 2회로 속초 관내에서 개최하고 강릉, 원주, 춘천 등 각 지역에서 초청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를 포함해서 연 4회입니다.

(오순석) 공연할 때에는 한스레, 논 삶는 쟁기, 쪽스레, 도리깨 등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를 표현한 소품을 사용해요. 농사 짓는 전 과정을 공연하다 보니 그 종류와 수가 많지요.

지금까지 도문농요 전수를 해오시면서 가장 뿌듯하고 기뻐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오순석, 오명현) 속초도문농요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저희가 예능보유자가 되었을 때죠. 그리고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



2022 설악문화제에서 진행된 속초도문농요 공연 모습

08
▽
09

속예슬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2004년 10월 14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슬제에서는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탔어요.

(오명현) 오순석 형님과 같이 7, 8년 전 설악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1년 정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점점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수하려고 했을 때가 가장 부듯했어요. 그때 우리가 가르쳐서 가을운동회 할 때 도문농요를 운동장에서 발표도 했고, 양양 민속경연대회에 나가 입상도 했어요.

속초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오순석)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서야 해요. 도문농요 보존하는 일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어서 그런지 전수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예능보유자가 되면 거의 반은 먹고살 수 있는 보수를 주었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 문화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도 도문농요를 전수해서 보존해야겠다는 긍지를 갖고 해나가야지요. 돈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속초

시민들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계승해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잘 협력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명현) 시민들이 우리 도문농요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으면 해요.

지금도 일을 하실 때에 도문농요를 부르는지 여쭙보았더니, 요즘은 농사를 사람 손으로 짓지 않고 다 기계로 짓기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다만 아무리 기계로 짓더라도 한번쯤은 손에 낫을 들고 구석진 곳에 벼를 베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에는 옛날에 농요를 부르며 일했던 기억이 나서 소리를 흥얼거리신다고 한다.

속초도문농요 공연을 위해서는 여러 명이 모여야 해서 애로사항도 많다고 한다. 문화재 전수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힘들 때도 있지만,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마을사람들의 단합이 더 잘되고 있어 흡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니 이곳 마을만이 가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 전태국

속초사색

영랑호는 화랑 '영랑'이 머물렀다는 그 이름의 유래답게 많은 이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다.
동해와 이어지는 석호는 오늘도 새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 박경심

속초사색

오래된 빈 절 터에 홀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중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노학동 3층석탑.
천 년을 지내온 탑과 육십 년을 살아온 나와 초록 살빛을 내는 한해살이 사마귀가 어느 날 문득 만났다.
흰 눈이 내리는 날 이 절 터에 다시 오고 싶다.

공간의 발견

우리의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책, 그리고 사람들



속초시립도서관 탐방기

© 전태극



© 전라북도



© 전라북도

업종 도서관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89

시설 1층 / 어린이도서관, 유아실, 장난감도서관

2층 / 종합자료실, 향토자료관, 치매도서
자료실

3층 / 열람실, 전자자료실, 문화강좌실,
시청각실

1) OTT(Over-the-top).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넷플릭스, 왓치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2) 풀이음 작은도서관. 2013년 12월 5일 개관.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6-15.

독서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도 웬지 모르게 손에 책을 쥐어야 할 것 같은 계절이 되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을 맞으며, 이 계절만이 주는 '희한한 의무감'을 갖고 발걸음을 향한 곳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대표 독서 공간인 속초시립도서관이다.

2015년 9월 22일 개관한 시립도서관은 지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 내외부 시설이 새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하다.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시설은 어린이도서관이다. 마치 이곳이 도서관의 대표 공간인 것처럼 넓적하고 크게 느껴졌다.

어린이도서관을 둘러보면서 공간 소개를 해주시는 사서님에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미지가 있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예전에 어린이도서관에 와서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그치기만 하다가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쓴 경험이 생각나서였다.

그런데 그것은 도서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다. 어린이도서관 사서님은 어린이들이 이 공간을 '책이 있는 놀이터'라고 여기고 편하게 놀다 가길 바란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재잘거림이 들리는 것을 지향한다는 말씀이 감동을 주었다. 이곳의 지향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린이도서관 내부에는 젓먹이 아기와 부모를 위한 수유실, 놀이터처럼 알록달록한 의자와 책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락방처럼 생긴 복층 구조의 아기자기한 책 읽기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속초시립도서관의 대표 '책 놀이터'를 나오면 왼편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보인다.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신세계이마트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조그마한 아기들의 오감 발달 장난감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방 놀이 세트와 토이북 등 다양한

장난감이 보기 좋게 비치되어 있다. 어린이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곳 장난감도서관 또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공간임이 분명했다. 더 나아가 장난감이 너무나도 흔해진 요즘, 다른 이들과 나누어 쓰는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도서관 공간인 종합자료실이 있다. 수많은 책이 반듯하게 진열된 책장에서 그윽하게 올라오는 책 냄새를 맡으면 나도 모르게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들만의 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들은 각자의 정해진 자리에서 그들을 찾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득 예전에 찾던 도서가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당시 직원 분이 자료실 외부에서 책을 따로 가져다 준 기억이 떠올랐다. 궁금한 것을 지나칠 수 없어 사서님에게 물었더니, 상상하지 못했던 도서관의 ‘비밀의 방’을 흔쾌히 공개해주었다. 바로 지하 1층에 있는 ‘보존서고’라는 곳인데, 이용률이 낮은 책들은 이곳으로 옮겨 보관한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이곳은 속초시민들의 책장을 대신해서 책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넉넉한 지하 서고를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곳은 종합

자료실 내부에 있는 향토자료실이다. 이곳은 일반 자료실과 다르게 구분된 공간으로 속초의 향기가 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공간이다. 속초를 중심으로 하여 50여 년간 발간된 동인문학지인 『갈피』부터 『속초사진 아카이브 사진집』 등 다양한 속초 예술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 밖에도 향토자료관 한편에는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를 다룬 도서를 일반 자료실로부터 구분하여 비치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찾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곳을 우선하여 방문하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자료실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니, 드디어 속초시립도서관의 꼭대기 층인 3층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사무실, 전자자료실, 강의실 등이 위치한다. 올라오자마자 눈에 띈 공간은 오른편 시청각실 복도에 마련된 전시 공간이다. 2022년 10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도서관 문화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의 결과물로, 천장에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시민들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자칫 무료해 보일 수 있는 여백의 공간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진 듯했다. 올 하반기에 새로 구성된 공간으로 속초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도서관의 마음 씀씀이가 오롯이 느껴졌다.

분위기 좋은 복도를 소유한 시청각실에서는 평일은 문화강좌가, 매주 토요일에는 영화 상영이 진행되고 있다. OTT¹⁾가 만연한 요즘, 도서관에 방문하여 영화를 보러 오는 이용객들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도서관 팀장님에게 영화관람 이용객 수에 관한 질문을 드렸다. 팀장님으로부터 ‘현답’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이 ‘우문’임을 깨달았다.

이용객 수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화를 통해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인쇄심이라는 덕목을 배우기 어려운 현대 아이들이 도서관에서의 영화 관람을 통해 참을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영화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더 깊고 중요한 지점까지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시청각실에서 나와 건너편 복도로 향하면 왼편에는 문화강좌실이 있다. 시청각실이 대규모의 문화강좌를 진행한다면 이곳은 20명 내외의 소규모의 인원을 수용한다. 매년 혹은 학기별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편성이 이루어지고, 전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 하반기에는 성인들을 위한 문학, 과학, 일러스트 수업과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영어, 미술, 드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강좌 선정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었다. 인기가 많다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고,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이 되었다고 불필요한 강좌가 아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

여러 강좌 중, 속초시립도서관의 부속 기관인 ‘풀이음 작은도서관’²⁾에서 진행하는 원혜영 동화작가의 ‘판화를 콩콩 찍어보아요’라는 특강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

왔다. 도서관에서 새로이 선정한 ‘판화’라는 장르는 아이들에게 신선함을 주었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고자 하는 속초시립도서관의 철학이 엿보였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도서관을 방문한 날은 휴관일인 월요일이었는데, 속초시립도서관의 사무실은 만석이었다. 도서관 휴일은 사서분들에게도 당연히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는 무지한 시민의 오해였다. 앞선 자료실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들처럼 사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속초시립도서관을 성장시키고 있다.

제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립도서관에서는 코로나에 대비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스루(Book Thru)’ 시스템이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시스템의 도서관 버전이다. 다행히 고위험 시기가 지나고 일상이 점점 회복되면서 도서관 이용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 불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속초 내 지정된 서점에서 필요한 도서를 대출한 후, 반납도 해당 서점에 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니 꼭 이용해보길 권장한다.

코로나가 완벽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지된 올해는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에 답답함을 느껴 도서관 방문을 주춤하게 된다면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 속초시립도서관 3층에는 맘 편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멋진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매우 당연한 우리의 일상을 위해, 올가을은 ‘희한한 의무감’을 갖고 속초시립도서관을 방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전입 신고합니다

매일 영랑호를 걸으며
마음을 쭉욱 펴고 사는 삶



© 유지민

김평화

작년 말 남편과 함께 속초로 이주했다. 속초에 있는 어느 서점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앞.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트리며 말했다. 8월부터 4개월간 주말이면 속초에 살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 지친 남편의 짜증이 폭발했다. 평일엔 새벽까지 야근인데 주말이면 차 막힐까 6시, 7시 차를 타고 서울에서 속초로 왔다. 무엇보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살던 전세 금액이면 신축 아파트도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속초에 와서 집에서 일해야 하니까 평수도 좀 넓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남편이 속초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툭 던진 말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는 불도저 정신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스무 살에 시작한 서울 생활은 15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았다. 시작부터 제일 큰 문제는 주거환경이었다. 서울의 화려함과 가늠조차 되지 않는 풍요로움, 거대함에 늘 주눅 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을 싫어했고, 남편은 환경을 바꾸고 싶어 했다. 속초가 작아서 좋았고, 몰려드는 관광객 덕분인지 여느 지방과 다르게 활기찬 점도 좋았다. 영랑호를 걸으며 만나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동해의 파랑은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높고 큰 산 설악을 경외했다. 이런 자연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었다.

속초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회사가 완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던 일을 속초에 와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일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였다. 내가 살 곳을 선택할 엄청난 기회. 무리해서 구하려고 했던 집은 안 되고, 결국 우연히 오래된 아파트와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원하는 만큼 집을 고쳤다. 파란색 작은 타일을 화장실에 붙이고, 주방에는 초록색 조명을 달았다. 짐은 많이 버렸다.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곳에 만족하고 안정과 애정을 느낀다.

속초에 온 지 8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회사 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다니지만 그래도 속초살이가 좋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가 내향적이고 집에만 있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속초에 오고 여름에는 자주 바다에 가 물고기를 보며 천진하게 좋아했다. 달리기도 시작했다. 운동장도 뛰고 영랑호도 뚫다.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데 10킬로미터를 뛰고는 기진맥진하고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든다. 천천히 마라톤까지 도전하겠다고 한다. 오래 봐왔는데 이런 말을 입에 올리고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놀랍다. 사는 곳을 옮기고 자연과 가까워진 물리적인 변화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실감한다.

나는 서점이고 카페이며 숙소이기도 한 어느 서점에서 일하고 있다. 서점 일도, 카페 일도, 숙소 관리도 처음 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곳이 지역 문화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서점의 대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라는 점에도 감사하다.

설악산을 보고 매일 영랑호를 걸으며 내 마음이 쭉 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 안정과 여유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활동을 만들어보고 싶다. 다행히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현하고 표현할 공간과 동료를 만나 신나게 일한다. 책에 둘러싸여 우리 서점 서가에는 무슨 책이 있는지 살피고, 보고 싶은 책을 늘려간다. 책이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일에 대해 낭만을 품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걸 기획해보자 들썩이며.

이야기 보따리

솔섬(松島)과 속초

마을 주민들이 ‘속초’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솔섬



솔섬, 속초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생소한 이름이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솔섬은 현재 동명항 북방파제 입구에 있는 섬으로, 속초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노송(老松)들이 고풍스럽게 우거져 있던 그림 같은 섬이었다.

섬이라고 하지만 해안선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방파제 조성 전에는 섬의 주변 바닥이 넓고 평평한 암반으로 되어 있었다. 물도 그다지 깊지 않아 바닷가랑 이를 무릎까지만 건어 올리면 건널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생업터이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모여서 놀던 놀이터이기도 했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섬에는 제법 오래된 소나무들이 풍광을 더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솔섬’이라고 했고, 한자로는 ‘송도(松島)’라고 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영금정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길에 형성된 마을을 마쪽마을(속초 방언으로 마짜개)이라고 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선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전에는 가능한 한 물길이 좀 더 잔잔한 곳으로 왕래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북방파제 끝부분에 있던 건널바위(건너풀)¹⁾라는 큰 암초 주변은 물살이 험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도 1960년대 초반 대형 해상사고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던 아픈 역사가 있기도 했다. 따라서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은 위험을 피해 솔섬을 이정표로 삼아 가능한 한 섬 가까운 곳으로 운항을 해야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섬은 이정표요 방향키였다.

그런데 이 섬이 변화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제강점기 속초항에 드나드는 선박이 많아지면서 1929년부터 속초 축항을 건설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32년부터 속초 축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돌을 채취할 만한 장소가 속초 지역에서는 영금정 일대 뿐이라는 점이었다. 결국 성황봉의 절개지와 영금정의 넓은 암반자리의 돌을 발파하여 레일 수레²⁾로 이 돌들을 실어 날랐다. 솔섬 주변은 안전을 이유로 암석 채취 후 남아 있는 부서진 돌과 흙으로 메워버려 육지로 만들었다. 이후 1994년에 북방파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아예 솔섬을 주변의 땅과 높이를 맞춰 작은 언덕으로 만들어 섬이라는 흔적마저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섬은 없어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이곳이 속초의 시작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 글을 쓰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명의 기원에 대해 말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향토사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속초’라는 지명의 기원에 대해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 연구자들이 ‘속초’라는 지명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속초시 지명 연구의 선구자인 주상훈 선생은 속초 전 지역의 지명을 정리한 『속초의 지명』을 저술하여 후배 연구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역할을 하였다. 주상훈 선생은 이 책에서 ‘속초’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해 ‘속초는 속새가 많은 황무지였으므로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한자로 속초라고 불렀다’고 정리하였다. 하지만 다른 향토사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현재는 네 가지로 압축되었고, 그 뒤로는 연구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한 네 가지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 관련 설 둘째, 술산(술섬) 관련 설 셋째, 속초 지형의 와우형(臥牛形) 설 넷째, 울산바위 관련 설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그럴 듯한 해석이지만, 이 글이 술섬을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술섬과 관련된 내용만 짧게 언급하기로 한다.

주상훈 선생의 『속초의 지명』에는 술산과 관련된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

속초(束草)는 ‘뭍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 옆에 술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술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는 마쪽마을 사람들의 굳은 믿음으로, 지명의 연구에서 한번쯤 살펴볼 만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술섬 일대에 어촌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다는 증거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 문헌에 보이는 것은 조선 전기에 기록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속초포(束草浦)’이다. 이 문헌의 ‘속초포’에 관한 기록은 수군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청초호 주변의 마을에 최소한 조선 전기부터는 사

사진 설명

앞 1956년의 솔섬 전경

옆 1940년대 솔섬 일대

(사진 제공: 속초시립박물관)



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실시한 속초리 토성³⁾ 발굴에서는 토성이 있던 장안골 주변에 고려전기부터 마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요약하자면 동명항 바닷가 즉, 마쪽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어업을 주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을 맞아주는 솔섬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분명한 것은 속초가 이제는 양양군에 속해 있던 예전의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은 지역주민보다 더 많은, 연간 천만이나 되는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 국민 관광지의 이미지를 가진 속초도 다른 지역처럼 이야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명 정리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속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이야기거리를 더한다면 여행의 맛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속초’라는 지명의 시작이 솔섬에서 출발했다면 이 섬은 속초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어야 한다. 설사 지명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솔섬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동네 어르신들의 추억만이라도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능하다면 이 섬을 원래의 모습대로 물길을 만들고, 물길 위로 돌다리라도 만들어 속초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을 한다면 ‘속초’라는 지명의 전설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안해본다.

1) 북방파제 앞부분에 있던 암초로 방파제 아래에 묻혀 있다.

2) 공사장에서 흙이나 돌을 나르기 위해 레일을 설치하여 밀고 다니던 수레다.

3) 속초리 토성은 속초감리교회 주변에 있던 성으로 고려시대에 쌓은 것이다.

이 글은 2021년 조사하여 발간한 『속초 도시변천사II』(속초문화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자세한 내용과 주석이 필요하신 분은 속초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정미현

우리 곁의 사람들

실향민들이 내린 하나의 닻

아트플랫폼 갯배 심삼옥 사무국장을 만나다

인터뷰 시민활동가 정미현

‘존재하지 않는 마을,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마을.’
아바이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이북 사람들의
마을’ 어딘가를 가리킨다. 고향을 떠나 같은 말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던 마을.

24
 ∨
 25

“아바이마을이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속초시민은 과연 몇이나 될까? 가을이 찾아온 어느 오후, 속초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자부하던 3년차 속초인은 청호동 사람을 만난 후 어렴풋이 그리던 ‘아바이마을=청호동’이라는 공식을 와장창 깨고 돌아왔다.

‘존재하지 않는 마을,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마을.’ 아바이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이북 사람들의 마을’ 어딘가를 가리킨다. 고향을 떠나 같은 말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던 마을. 실향의 상징인 아바이마을을 대표하는 청호동에서 실향민 2세 심삼옥 사무국장을 만나 아바이마을의 시간들을 함께 그려보았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트플랫폼 갯배의 심삼옥입니다. 아바이마을을 갯배선착장 주변(신포마을)에서 태어나, 5살에 청호초 주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5살에 현재의 아이파크 후문 쪽에 자리 잡은 후 지금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27살에 속초로 돌아와 직장인으로 졸근 살다가, 40살이 넘어 마을 일에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마을활동가까지 되었네요.

아바이마을의 여러 이야기가 지역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실향민 2세로서 마을을 소개할 기회가 종종 생겼어요. 그런데 매체들이 담는 ‘아바이마을’은 이미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알려진 이야기들에 맞춰 짜인 내용들을 보며, ‘진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알고 있는 걸 전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을을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제1호 마을해설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지요.

‘마을활동가’, ‘마을해설사’, 이외에도 청호동에서 다양한 역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아트플랫폼 갯배는 ‘아사모’라는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사모는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청호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2005년 결성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대부분 청호초 출신이고, 그중

80~90퍼센트는 실향민 2세이기도 해요. 마을에 함께 살고, 학교도 함께 졸업하고, 매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다른 마을보다 더 '끈끈한 정' 같은 것이 있지요.

아사모는 2016년부터 아트플랫폼 갯배를 운영해왔는데, 사실 올해 5월까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곳을 운영해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처음 만들 때의 그 '의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운영을 지속해왔어요. 우리 동네의 일이잖아요. 마을에 생긴 건물을 문닫아 놓을 수는 없으니, 주민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운영했죠. 외부에서 볼 때는 지난 5년간 운영의 허술함이 있었겠지만, 조금은 미흡하고 허술해도 주민이 의무감을 갖고 직접 운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요. 감사하게도 올해 6월부터는 공간운영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씨드머니(seed money)로 삼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보고 싶어요.

아트플랫폼 갯배도 소개해주세요.

정확한 이름은 '북합문화공간 아트플랫폼 갯배'예요. 1층은 북합문화공간으로, 2층은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트플랫폼 갯배 자리는 사실 동네의 오물덩어리 집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공모전에서 속초시와 지역 예술인들, 아사모가 모여 제안한 공모전에 3등으로 당선되면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곳은 '해양컨테이너'를 두 층으로 쌓아 올린 건물로,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가야 할 곳을 찾는 실향민의 모습이 마치 바다를 향해하며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해양컨테이너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실향민 2세대가 가까워서 바라본 실향민 1세대들의 삶, 어땠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향민 1세대의 삶은 '어두운 터널' 같지요? 하지만 실향민의 삶이 1년 내내 짙은 회색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아바이마을을 '우울과 그리움이 가





© 전덕기

득 찬 동네'로서 바라보지만, 사실 1세대의 삶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치열하게 살아냈고요, 동향 사람들이 모여 살며 서로 위안이 되어주었죠. 1년에 몇 차례, 명절이나 6·25 같은 때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향을 그리기도 했지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과 친지가 되어주면서 '아바이마을'을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젊은 청년이 낯선 땅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뿌리를 잘 내리도록 양육했으니까요. 비록 생계를 유지하느라 실형민 2세대는 거의 방목된 채로 자랐지만,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키우고 보듬어 주며 컸어요. 그래도 청호동에는 교육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골고루 많이 나왔어요. 이북 특유의 교육열이 있거든요.

앞으로 아트플랫폼 갯배에서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씨드머니'가 생겼으니, 마을 이야기를 다음 세대 청

년들에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기획 중인 프로그램은 '청호동 인문학'인데요. 5회 정도의 강의를 통해 청호동을 알리고 '청년 마을해설가'를 키우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로 아바이마을을 소개한다면, 조금 더 젊고 감성적인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눈으로 마을을 더 가깝고 싶어요. 강의는 올해 10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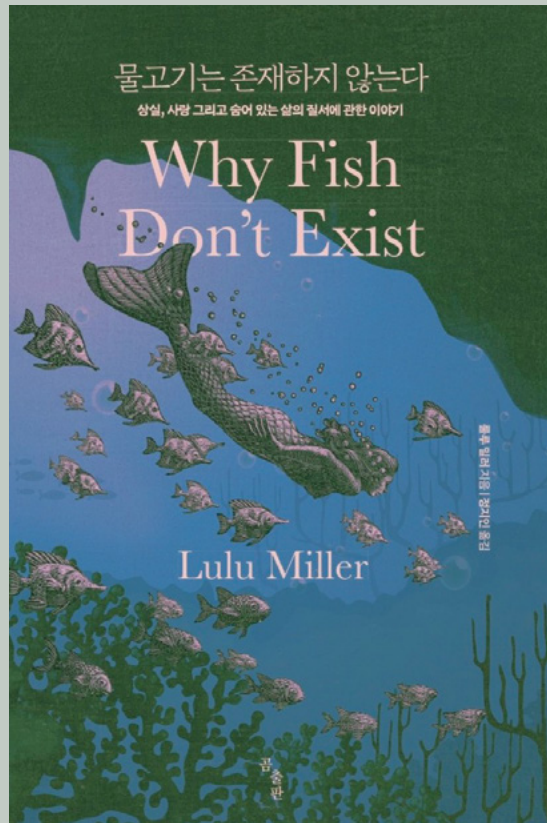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속초시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바이마을 내 위치한 아트플랫폼 갯배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 소규모라도 주저하지 않고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어요. 단체의 회의 장소나 행사 장소로서도,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곳이 '열린 공간', '문턱이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아트플랫폼 갯배가 좋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속초 느낌표

놀라운 성취 뒤의 어두운 그림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영희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는 어떤 상황에서는 추려내야 할 잡초로 여겨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작해야 하는 가치 있는 약초로 여겨지기도 한다.”—책 속에서

제목이 이상해 보여서 궁금증이 일었다. 생태과학 책인가? 환경문제를 다루었나? 내 관심 분야와는 멀어 주저하며 책을 펼쳤다.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자서전, 에세이, 과학서, 철학서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소설처럼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작가의 글 솜씨에 나는 곧 매료되었고, 책 속의 사실과 사건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며 작가를 따라갔다.

책을 펼치면 미국의 과학 전문 기자인 저자의 이야기와 생태분류학자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일대기가 씨줄과 날줄처럼 얹히며 펼쳐진다. 저자는 과학자이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유년기를 보냈다. 성장기 또한 아픈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 시도 같은 일을 겪으며 방황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양성애적 취향으로 사랑에 실패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필요했던 작가는 이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의 회고록을 만나게 된다.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구현해나가는 그를 인생의 멘토로 삼기로 한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어린 시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별과 꽃을 분류하며 세상에 자기 혼자만의 질서를 부여했고 지도를 제작하여 지형을 분류하며 놀았던 외로운 소년이었다. 그는 과학자의 길로 들어섰고, 신의 존재가 상실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가 되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그는 그 질서에 따라 규칙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까지 느낀다. 전 세계를 광범위하게 탐사하며 새로운 물고기들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분류하고 체계를 세우는 데 몰두한다. 그가 발견한 어류가 전체 어류의 5분의 1 이나 된다고 한다. 그 업적을 평가받아 그는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에 오른다. 가히 학문과 사회적 명성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을 착취하고 업적을 빼앗았으며 자신의 연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 심지어 독살까지도 벌였다. 말년에는 열광적 우생학자의 길을 걷는다. 우생학을 최초로 국가 정책으로 삼은 나라가 미국이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부적합자’ ‘강제 불임화’ 등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열등한 유전자로 구분된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불임으로 만들어 그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도록 한다니. 당시에는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곧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다. 데이비드는 저술과 강연을 통해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전파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류하여 인간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자신의 손에 쥐려고 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가 일생을 바쳐 연구했던 어류, 그건 허상이었다. 외피와 서식 환경만을 고려하여 ‘물에 사는 비늘을 가진 것들’을 어류라고 분류 짓는 건 본질적인 속성을 무시한 비과학적 분류임이 밝혀졌다. 어떤 물고기는 인간과 닮은 폐 기관 등을 갖고 있고 유사성만으로 분류한다면 인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좇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이 가진 과욕과 그 폐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거버넌스 대표자 회의 3차

어느덧 거버넌스 대표자 회의가 3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거버넌스를 이끌어온 대표·총무가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버넌스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제3차 시민클럽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시민기획 문화실험실 사전·중간 워크숍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 생동하기 위한 문화도시 속초의 시민기획 문화실험실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각 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살린 프로젝트에 대해 컨설턴트들이 코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속초시민이 만들어가는 OK활력소와 문화로OK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OK활력소 참여자 모집 QR코드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워크숍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문화도시 속초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 조치원1927를 탐방하였습니다.



제3차 시민클럽

제3차 시민클럽에서는 1년 가까이 거버넌스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들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초에 이주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고, 더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X 라이프벨리

라이프벨리 참여 청년이 시민활동가와 1:1 매칭하여 속초 현지투어, 지역정화활동 등을 함께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스캐쳐(라이프벨리 참여 청년을 칭함)들이 속초란 지역에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속초아트페어 개최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작가가 참여하는 지역에 특화된 아트페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속초아트페어 주관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했습니다. 속초아트페어 특별기획전 <굿-LUCK>은 속초의 다양한 도시환경 중에서도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하는 특성들을 주제로 전시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속초시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작년 제4차 예비문화도시 최종 발표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속초시는 올해 시민들과 함께 다시 준비하여 끝내 제5차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속초시는 '지역관광'은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 향유'는 위축되고 있어 '관광산업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하는 공존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지역문화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설악문화제 문화도시 속초 부스 운영

제57회 설악문화제 이틀간 문화도시 속초 부스에서 시민거버넌스 중 문화도시 공론화, 굿즈개발팀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도시 공론화에서는 설악문화제 시민만족도 조사를, 굿즈개발에서는 웰컴기프트세트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수렴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존문화도시 속초
제5차(예비)
문화도시 지정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We are Sokcho-East



